

KWWA Member's News

취·정수장 운영 매뉴얼 마련

환경부 • 환경부는 지난 10월, 4대강 사업 하천 공사에 대비한 취·정수장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4대강 살리기 사업개요 △취수시설 현황 및 취수영향 해소방안 △공사 시 오염물질 발생·유출 방지대책 △오염물질 유입 시 취·정수장 대응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취·정수장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국토관리청 및 공구별 시공사, 민간 취수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25개 취수영향 시설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취수영향을 받는 25개 이외의 취수시설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여 최적의 취수영향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사전에 환경부(수도정책과) 및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관리청 및 공구별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후 설계 및 시공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취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4대강 사업 시행자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취·정수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 착수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현산댐은 4대강 살리기 수자원 확보 사업에 포함된 댐으로 경북



영천시 화북면(낙동강지류 고현천)에 높이 57m, 길이 245m, 총 저수용량 2,200만 톤 규모로 건설된다. 보현산댐이 건설되면 연간 1,500만 톤의 청정용수를 영천, 경산시에 공급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387Mwh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홍수 시 350만 톤의 물을 조절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댐 건설 후에도 댐에서 발생한 용수판매 및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수돗물분석연구센터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는 지난 11월 30일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수질시험 분야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돗물분석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5월 수도사업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인정받고, 2008년에는 최우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은 수돗물 분석연구센터가 세계최고 수준의 수돗물 분석능력 검증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수돗물분석연구센터의 이상태 실장은 "이번 지정은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수질분석 시험실의 품질 보증 등을 비롯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 그리고 수질 분석연구능력 신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출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정관 본부장(前 복지국장)이 공직생활 중 공공복지 영역의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며 느낀 문제의식과 대안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국내외 복지정책 연구자료와 정책사례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정리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 본문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본문에서는 미국·영국·한국 등 각국 정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및 복지개혁 작업과 정책사례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혁신적 제안들을 소개한다. 이정관 본부장은 "복지정책 연구자 및 복지분야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 및 복지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론과 현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집필 취지와 소망을 밝혔다.



신축 아파트에 '아리수' 직접 공급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서소문청사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GS건설(주) 등 종합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27개 건설사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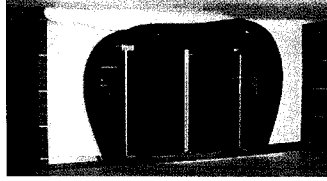


축 아파트에 수돗물 재처리시설인 중앙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홈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훼손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정수처리장치와 세대별 정수기를 옵션으로 설치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에는 별도의 정수처리 없이 수돗물인 '아리수'가 직접 공급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서울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저탄소 녹색 서울을 만들고자 현재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리수 아파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전했다.

회원님들의 최근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1일부터 탄천물재생센터 체험관 운영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본관 2층에 체험관을 조성·운영한다고 밝혔다. 252㎡ 규모의 체험관은 어린이와 방문자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들으면서



'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미생물 체험교실'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맑은 물 체험관'에서는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을 찌꺼기가 깨끗한 물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의 맑은 물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험관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찾는 방문객의 77%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미요소를 더했다"고 말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체험관 이용대상은 유아 및 어린이, 초등학교생 등이며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홈페이지(www.tancheon.com)나 전화(02-3410-9866)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얼어터진 상수도 '121' 전화걸면 '원스톱 해결'

부산광역시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21번으로 상수도시설 민원을 신고하면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팀'이 원스톱(One-Stop)으로 문제를 처리해 주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집을 비울 때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밸브를 잠그고 헌옷이나 이불, 스티로폼 등 보온 재료를 채워 수도 용구가 얼지 않도록 하고 마당, 화장실, 욕실 물탱크 등 노출된 수도관 및 수도꼭지도 스티로폼이나 헝겊 등 보온재로 감싸 얼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우선 통내 밸브를 잠그고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고하면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팀'이 방문해 계량기 교체 등 수도에 대한 불편사항을 처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도물 값 대폭 내린다

인천광역시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업무용으로 지정돼 요금에 부과되던 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해 부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용 수도요금은 1단계 1~300톤까지 1톤당 800원이며 2단계 301톤 이상은 970원의 요금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 1~20톤까지 450원, 2단계 21~30톤까지 640원, 3단계 31톤 이상은 810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되면 가정용 3단계인 810원이 적용돼 요금이 170원 줄어들게 되며, 인천지역 752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이 연평균 1억 7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보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최우수 사업장 선정

대전광역시 •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수질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부착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한 '수질TMS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에서 대전시 하수처리장이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걸쳐 공공과 민간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이에 대전은 신뢰성 향상 분야, 수질 TMS활용 분야, 환경질 개선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질 TMS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물 환경 개선사례가 이번 평가에서 호평을 얻으며 향후 타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장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최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 기부키로 했다.

용인지역 수돗물, 자체 수질검사 가능

경기도 • 경기도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기관이 수질측정능력, 분석능력, 현장평가 등 3개 항목 평가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돗물, 지하수, 먹는 샘물,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자체 기술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온 수질검사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나 기관 등이 의뢰하는 검사 시행도 가능해 도는 연평균 3천여 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과 수수료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 지정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 운영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각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과 직원을 배치해 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사고수습·복구 계획 수립 및 지원, 인근 시·군 방제장비 및 인력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내에서는 지난해 3월 농약 잔량을 하천에 투여해 어류가 폐사하는 등 2008년 2건, 2009년 3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갈수기에 발생했었다. 따라서 도는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에는 사업장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하천 감시 활동을 벌이고,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월 본격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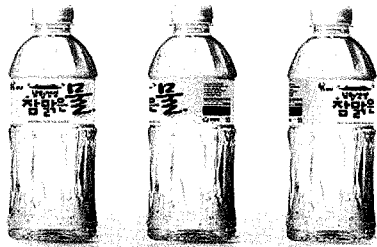
전라북도 • 전라북도 군산의 하수 고도처리시설이 시험가동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여 총질소와 총인 저감으로 연안지역의 적조 해소가 기대된다. 군산시는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처리계통이 지난 9월 완료됨에 따라 6개월간 관련 공무원, 시공사, 운영사가 합동으로 시험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의 하수 고도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내 24만㎡ 부지에 1일 고도처리능력 20만 톤 규모의 처리장 시설과 악취발생 시설인 침사지, 일차 침전지 및 생물 반응조를 완전 밀폐형인 알루미늄돔으로 설치하여 악취분해 시설을 보강했다. 또 시내지역 하수 유입을 대비한 무인 중계 펌프장 2동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총 사업비 498억원이 투자됐다.

■ 하수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하수처리장이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억 5,000만원을 투입, 월정·판포·성산·대정하수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해 가동 중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도두·보목·색달·남원하수처리장 등 4개 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수질의 관리·점검이 이뤄져 연중 수질 오염사고 예방체계 확보 및 자체 수처리 공정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시간 데이터가 환경부 수질관제센터로 전송돼 법적수질기준 준수 및 오염물질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돼 해역 수질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새 수돗물 브랜드 '남한산성 참 맑은 물' 유통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의 새 수돗물 브랜드인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유통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5억 5천여 만원을 들여 수정구 북정정수장에



PET병을 생산 자동화설비와 활성탄 및 혼합산화제 등의 설비를 갖춘 병입수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은 일반 공급용 350ml와 500ml, 비상 급수용 1.8ℓ 등 3종으로 생산된다. 성남시는 페트병 수돗물을 일주일에 5천 병, 연간 20만 병을 생산해 각 구청 민원실의 냉장 쇼케이스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단수 시 비상 급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성남시 정수과(031-729-4155)로 신청하면 최대 2천 병까지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양평 상수도 관리업무 '우수'

양평군 •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9년도 상수도 관리업무 평가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양평군은 그동안 상

수도 보급률 및 우수율 향상을 위해 △양평 통합상수도 설치로 소규모 취·정수장 통합운영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관로 교체 및 구역 개량사업 △취·정수장 개량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다. 또한 상수도 사용자 징수 철저히 공기업 재정 지립도 향상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급수환경이 열악한 강상·강하면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선 확보된 14억원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나가겠다”며 “상수도 보급률 및 우수율 향상과 취·정수장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수도요금 감면정책 큰 호응

강릉시 •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가 시행한 수도요금 감면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7월 29일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적용·시행하고 있는 감면혜택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50%, 초·중·고교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1단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수도설치에 따른 부담이 큰 읍·면지역의 경우 수도시설 부담금을 동지역의 67% 수준으로 낮추는 등 수도요금 관련 감면시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 상수도 연수화 사업 본격 추진

삼척시 • 강원도 삼척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연수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하천 수계 내 지질이 대부분 석회암 지대로 형성돼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수도 수질의 경도 수치가 높아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국비 11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 1월부터 막어과공법에 대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 각종 인허가 및 시설 설계 심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연수화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척시 오십천의 원수 경도는 평균 180mg/l(최저 107~최고 269mg/l)이며, 연수화 사업이 완료되면 99mg/l(수도물 사용에 가장 적당한 경도 : 100mg/l)로 낮춰질 전망이다.

회원님들의 최근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하수처리장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보령시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생태체험 학습장이 조성돼 시민들 곁으로 한층 다가서게 됐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대천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부



지 1만 5,900㎡에 생태습지와 방향식물원,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해 지난 달 15일부터 개방했다. 국비 16억원을 포함해 총 32억원이 투입된 생태학습장은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이용해 40여 종의 초화식물을 재배하고 15종의 야생초화원과 25종의 허브를 식재한 방향식물원을 조성했다. 보령의 특산물인 남포오석을 활용해 상징물을 곳곳에 배치하고, 습지에는 각종 어류도 양식하고 있어 수생과 육생이 조화로운 서식환경이 완비됐다. 이 외에도 소공연장과 각종 휴게시설을 갖춰 시민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혹한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종합대책 추진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겨울철 혹한기를 맞아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를 동파예방 취약기간으로 정하고 수도행정과 직원을 5개조 10명으로 편성하여 '121 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 동파예방활동 주민제도수칙을 담은 홍보전단 6만 매를 제작해 검침원들이 일반 수용가에 직접 배포했으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시청 홍보 전광판, 반상회보를 통해 동파예방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 우선 통내 밸브를 잠그고 국번 없이 121번이나 054-270-5331로 연락하면 된다"며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함을 헛웃이나 천 등으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수 바이오가스로 연간 8억원 예산절감

김해시 • 하수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연간 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 본격 준공됐다.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 맑은 물 순환센터(구 하수처리장)'에 하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2008년 5월 36억원을 들여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준공했다. 이 시설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열 및 맑은 물 순환센터내 소화조 효율개선을 통한 바이오(메탄)가스 발생량을 기존보다 높여 시간당 75만㎾의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 외에도 장유 하수처리시설에 소화조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면 연간 20여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의 맑은 물 순환센터는 기존 시설에 증유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절약 사업인 하수 바이오가스(소화가스)로 대체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생태하천 하천수로 재이용

마산시 • 경상남도 마산시는 맑은 수질로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국내 최초로 생태하천에 공급해 하천수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마산시 하수처리장은 1일 5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기술이 뛰어나 현재 고도처리한 방류수를 하루 4천 톤씩 재이용하는 실험을 추진 중이다. 하수처리장이 자체 조성한 덕동 연못에는 현재 수백 마리의 비단잉어와 각종 수중생물들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실험이 끝나면 마산시는 이 방류수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교방천 등 5개 하천에 공급해 4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계절별 유량변동으로 인해 부족한 하천수 확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두산비나, 담수용 증발기 UAE 설치

두산중공업 •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소재 플랜트 제조사인 두산비나(Vina)에서 제작된 '다단 증발 해수담수 증발기' 제품이 UAE의 두바이에



설치를 완료했다. 두산비나는 지난 11월 13일 베트남 중동부 해안지역 공장에서 황 쯡 하이 베트남 부총리, 조봉진 법인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하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담수 증발기는 바닷물을 가열해 나온 수증기를 응축해 담수로 만드는 플랜트의 핵심설비로 높이 10.6m, 폭 29.2m, 길이 100.4m 규모이며 하루 2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두산비나의 조봉진 법인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우수 인력이 결합해 담수 플랜트 핵심설비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현지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성을 높여 글로벌 생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슬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대폭 저감을 통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장에 악취 방지 및 세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는 암모니아 가스 및 복합 악취를 포집 처리하기 위한 국소박이 장치와 악취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한 에어 커튼을 설치했다. 또한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세륜기도 설치했다. 공사 자원관리실의 박근식 실장은 "악취 저감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확대 및 공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